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연말은 지금 윤패한 모습이 아니다.

‘거품’이라는 단어가 생활 전반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꿈과 같고, 허깨비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실감하는 것일까?

그런 거품 가운데서도 실소를 자아내는 이야기가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신이 쪼그라든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숨겨둔 애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다.

조사결과 억만장자 대부분은 숨겨둔 애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70%가 애인의 생활비 지원을 줄였으며 12%는 재정상태를 이유로 관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남성 억만장자의 경우다.

한편 여성 억만장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애인에게 쓰는 비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인데 조사가 임했던 사회학자 B, ‘외도가 남성에게는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지만, 여성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위한 것으로 근심에 대한 도피처로 이용되기 때문’ 이란다.

어느 경우든 대표적 ‘욕망의 거품’ 하나를 본 셈이다.

동물에게도 ‘욕망의 거품’이 있을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인간이 오늘처럼 인간답게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인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인간은 그 반응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 그다지 빠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 뇌는 외부자극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경기침체와 ‘거품’에 대한 반응

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인간의 뇌는 약간 느린 반응을 보인다. 아니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왔고,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그리고 문명과 과학 문화 철학 종교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지연’이라는 틈새에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 틈새에서 생각이 진화해 왔다고 보아야 할

까? 즉각적인 반응, 인간의 삶에서 그 전광석화 같은 재빠름이 필요한 경우는 많다. 그러나 재삼재사 숙고해야 할 일도 많으며, 특히 생각의 깊이에 따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형성돼 왔을 것이다.

‘한번 사색에 빠져들면 더욱 깊은 사색에 빠져들고 이처럼 반복되는 사색으로 해서 우주론이 탄생한다.’는 천문학자들의 믿음에도 그런 생각의 힘을 엿볼 수 있다.

방울뱀이 적의선으로 우주를 감지한다지만 인간처럼 우주를 읽어내려 하지 않는다.

무한 우주를 보이지 않는 미세 세계의 ‘초 끈 이론’으로 풀어내는 인간의 사색과 연구 성과를 보라.

초강력 현미경이 있어 미세한 소립자 규모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보이는 것은 수백 가지의 점 입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동하는 ‘끈’이라는 사실. ‘그 끈의 진동패턴에 따라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며 우주는 이 끈이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과학적 추론은 깊은 명상 속에서 우주를 체득하는 종교의 경지에 근접하고 있다. ‘티끌 하나머더가 우주를 품고 있다...’

생각이 올바로 흐를 경우 인간은 이처럼 우주의 신비를 얻을 수도 있고, 올바로 흐르지 못할 경우 ‘욕망의 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한다. 인터넷 세계를 구성하는 인터넷 인류들, 지난 한해 그 네티즌들이 보여 준 사회적 여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에서 우리는 생각의 깊이를 발견할 수 없다. 동물에 없는 ‘반응의 지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일까?

이는 연말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반응에서도 보인다.

‘생각’에 깊이를 더해 보면 우리에게서 잘못 길든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인간적인 품위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결코 밝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상황이나 사회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자각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의 입력을 소개한다.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전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5) 마음의 힘을 믿자

될 것, 나는 천 번 보고 만 번 보면 된다. 그게 공부다.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렸을 때의 한이 맺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으로 ‘지금 꼭 공부해야 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도 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작이 반이다. 무조건 해 볼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자’라고 마음의 입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는 또 다른 좋지 않은 일과 겹쳐서 더욱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상황이 오면 스스로 견뎌지지 못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스스로 절망을 하고 힘들어 합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에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학교생활도 잘 되지 않고, 학교 시험에, 그리고 이어지는 취업 낙방 소식,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경제 상황은 저를 절망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을까? 하며 저 같은 4학년에게 주어지 이런 저

런 나쁜 상황이 마치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은 부정은 부정을 부르고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살면서 저는 나쁜 쪽으로만 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부정이 부정을 부르듯 생각을 해보면, 긍정은 긍정을 불렀습니다. 좋은 때는 인식을 못하고, 좋지 않은 상황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좋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좋은 일에 웃음이 끈이지 않았던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생각도 못한 사이 넘어 간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더 큰 상황이 발생해도 이겨 낼 수도 있고,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해서 긍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빛이 짙게 쬐는 날도 있다. 어려운 지금을 잘 넘기면 좋은 날이 더욱 크게 웃을 수 있다’라고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절망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절망과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힘이다. 긍정적으로 마음의 입력을 하다보면 결국 상황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힘을 믿고 힘내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사 강사)

‘난 못해’ ⇨ ‘무조건 해보자’

나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겁 먹어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저건 어려워’ ‘난 안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도 전에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막상 시작을 하면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보이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런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를 보았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선 공부를 하셨습니다. 비록 중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지만 하루에 13시간 이상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어서저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하시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공부라 했습니다. 집 안에 가득한 수학공식과 각종 외워야 할 것들은 벽에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10번 보면

‘안좋은 일만’ ⇨ ‘좋은 일 많을거야’

21세기 新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치방학'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2009년(己丑年) 천년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상삼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